

What's Your Favorite Story About Jesu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April 11, 2024

Aloha MPC 'Ohana,

I'd like to thank Rev. John Sears for covering for me last Sunday while Nan and I were on vacation. His insightful reflections on the two gospel texts really spoke to me, as I'm sure they did to you too.

In addition to tuning in to MPC's worship service online, last weekend Nan and I attended worship at two churches over on the Big Island in Kalapana. Last Friday we went to Mass at Star of the Sea Catholic Church, and this past Sunday we worshipped at Opihikao United Church of Christ. The people of both congregations were wonderfully hospitable and gracious, and both churches were themselves very beautiful.

Of the two, the Star of the Sea Church is probably more well-known because it is one of the Big Island's two famous "painted churches." I've been wanting to see the art inside the Star of the Sea Church for a long time, and it did not disappoint. From the annunciation to Mary right on through to the crucifixion,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ere are paintings inside the church which depict many of the "highlights" of the Gospel story.

I took pictures of them all (hopefully for later use in future MPC power points). But as I was reviewing the photos later, I found myself becoming aware of which scenes from the Gospel story had *not* been painted inside the church. For example, there were paintings of Jesus' birth, of his presentation in the Temple, and of his questioning the teachers of the law there at age twelve, but there was no picture of the baptism of Christ or of hi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I found that interesting.

There was a painting of Jesus healing ten lepers (which makes sense in the context of Catholic mission work in 19<sup>th</sup> century Hawai'i), but that was the only miracle of Jesus' which was portrayed – ie. there was no turning water into wine, walking on water, feeding the five thousand, restoring sight to the blind man, etc. That was interesting to me too.

And when I say these things were "interesting," I really do mean that. I don't in any way mean to suggest any criticism of the artist(s) who painted what they did inside the Star of the Sea Church – not at all. It was just genuinely "interesting" to me to notice which parts of the Gospel story were evidently most meaningful to that particular congregation.

And that in turn got me thinking, which stories about Jesus would I choose if I were going to paint the walls of a church with scenes from the life of Christ? (Don't worry, I'm not really thinking of doing that – for one thing, because I can't paint or draw anything better than stick figures).

But as a thought experiment, if I were going to paint the life of Christ, which scenes from the Gospel story would I want to be sure to include?

Like the good folks at Star of the Sea Church, I too would of course want to include Jesus' birth, his death and resurrection, etc. But when I think about his life and ministry, I think one story that I would definitely include would be the raising of Jairus' daughter (Mark 5:21-43) because it is, frankly, my personal favorite.

I love how, in that story, we're shown both the power of Jesus (he brings a dead girl back to life) and yet he also displays this incredible tenderness. We're shown Jesus' tenderness in the words which Mark says he spoke to the little girl as he called her back to life. Mark, in fact, gives us Jesus' actual words in Aramaic, "Talitha cum."

Those words, "Talitha cum," usually get translated into English as, "Little girl, arise,"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is accurate enough. But in his book *The Three Gospels*, New Testament scholar Reynolds Price brings out the real depth and tone of the words, as spoken by Jesus, when he translates them like this: "Wake up, little lamb."

I love that. Because the picture which Mark paints is not of some large-and-in-charge Jesus who bursts into the home of a family whose child had just died and who starts giving orders ("Take me to the patient – STAT," etc.). No, the picture is of a Jesus who, yes, is powerful enough to undo death, and yet who also has this wonderful bedside manner. Such that he kneels down beside the girl's deathbed, gently takes her lifeless hand in his own, and then – as if softly rousing her from a brief nap – he whispers tenderly, "Wake up, little lamb." And she opens her eyes... Wow.

To me, that story alone tells me everything I think my heart really needs to know about what Jesus was really like – and it never fails to bring me to my knees.

But what about you? What's your favorite story about Jesus? Which scene from the Gospels is your favorite portrait of Jesus, and what do you love about it? I think it'd be very "interesting" if we all found out what one another's favorite Gospel stories are. How about you?

Me ke aloha,  
Pastor Ron

예수님에 관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지난 일요일 Nan과 제가 휴가를 가는 동안 저를 대신해 주신 John Sears 목사님께 감사드리

고 싶습니다.

두 개의 복음서 본문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는 성찰은 나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당신에게도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MPC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것 외에도 지난 주말 Nan과 저는 Kalapana의 Big Island에 있는 두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바다의 별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오피히카오 그리스도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교회의 사람들은 놀랍도록 친절하고 은혜로웠으며, 두 교회 모두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두 곳 중 바다의 별 교회(Star of the Sea Church)는 빅 아일랜드의 유명한 두 개의 "채색된 교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바다의 별 교회 내부의 예술 작품을 보고 싶었는데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부터 십자가형, 부활, 승천까지 복음 이야기의 많은 "하이라이트"를 묘사하는 그림이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나중에 MPC 파워 포인트에서 나중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복음서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교회 내부에 그려지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탄생, 성전에서의 봉헌, 열두 살 때 그곳에서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는 그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세례나 광야에서의 유혹에 대한 그림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흥미로웠다.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는 예수의 그림이 있었지만(19세기 하와이의 가톨릭 선교 사업의 맥락에서 이해가 됨), 그것이 묘사된 예수의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물 위를 걷는 일, 오천 명을 먹이는 일,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하는 일 등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이 "흥미롭다"고 말할 때, 나는 정말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바다의 별 교회 내부에서 그런 그림을 그린 예술가들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분명히 그 특정 회중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나에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장면으로 교회 벽을 칠한다면 예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저는 막대 그림보다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실험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다면 복음 이야기의 어떤 장면을 꼭 포함하고 싶겠습니까?

바다별교회의 선한 분들처럼 나 역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등을 물론 포함하고 싶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생각할 때 꼭 포함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야이로의 딸을 키우는 일(마가복음 5:21-43)이 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능력(그분은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다)과 놀라운 부드러움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마가가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예수께서 아람어로 하신 실제 말씀인 “달리타쿰”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Talitha cum”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번역됩니다.

충분히 정확합니다.

그러나 신약학자인 레이놀즈 프라이스(Reynolds Price)는 자신의 저서 \_『삼복음서』\_ 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실제 깊이와 어조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제시합니다. “어린 양아, 일어나라.”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마가가 그린 그림은 막 아이가 죽은 가족의 집에 뛰어들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나를 환자에게 데려가세요 - STAT” 등) 어떤 큰 책임자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니요, 그림은 죽음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침대 곁에서 이렇게 놀라운 태도를 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소녀의 임종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녀의 생명이 없는 손을 잡은 다음 - 마치 잠깐 낮잠을 자던 소녀를 부드럽게 깨우듯이 -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깨어나라 어린 양아.”

그리고 그녀는 눈을 뜨는데...

우와.

나에게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내 마음이 정말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항상 나를 무릎꿇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 중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무엇이며, 그 장면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아낸다면 매우 “흥미롭”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나 알로하,

론 목사